논어 8편 태백 9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民可使由之，不可使知之。」

독음 · 자왈 민가사유지 불가사지지

쉬운 풀이(요약) · 백성이 도를 따라 살게 할 수는 있어도 그 까닭을 모두 이해시키기는 어렵다는 말이다. 이 구절의 문장 나눔과 뜻에는 여러 해석이 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民 백성 민 민 / 可 옳을 가 가

使 하여금 사 사 / 由 말미암을 유 유 / 之 갈 지 / 不 아닐 불

知 알 지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